

복지개혁과 빈곤가정

김 은 정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강사)

과거 어느 때 보다는 지금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들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가족들이 어떠한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받으며 또 실제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지역사회 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복지서비스들이 이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나 만족시키는 지, 이들이 구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복지에 관심을 갖는 사회과학자들의 현재의 책임이기도 하다. (p. 133)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6)>

I. 서론

미국의 1996년 복지개혁으로 인해 시행된 “개인책임과 노동기회조정법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이하 PRWORA)”은 이전까지 부양 자녀가 있는 비취업 편모들에 보장해 주었던 정부의 현금보장 프로그램인 AFDC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일시적 현금보조 프로그램인 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대체하였다. TANF는 취업을 근거로 한 시간제한적인 복지프로그램으로서, 이 제도에 따르면 복지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을 해야 하며 복지수급 가능 기간은 전 생애에 걸쳐 5년으로 제한된다.

복지체계의 이와 같은 큰 변화는 수백만의 빈곤 가족과 그 구성원들의 삶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복지개혁의 가능한 영향들을 분석해 왔다. 그러나 복지개혁을 평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기존 복지 수급자들의 취업률, 취업 기간, 취업장애 요인들과 같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Brauner & Loprest, 1999a; Cancian & Meyer, 2000; Corcoran et al., 2000; Moffit & Roff, 2000; Zedlewski & Alderson, 2001b), 복지수급 편모들의 비경제적 복지상태, 특히 그들의 부모로서의 심리적 복지와 같은 측면은 거의 연구되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지금까지의 빈곤 편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이 그들의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모역할에 비해 훨씬 더 강조해왔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사실상 20세기 중반이후 미국의 빈곤 편모를 위한 사회복지 정책은 편모의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일차적으로 강조해왔으며 (Goodwin, 1995; Mink, 1998), 이로 인해 학문의 영역에서나 실제 복지정책 영역에서나 빈곤 편모들이 가지는 부모로서의 다양한 문제들은 간과되어 왔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가진 편모들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부양자 역할보다는 자녀에게 직접적 보살핌과 애정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하며 (Olson & Banyard, 1993; Polit et al. 2001; Seccombe, 1999; Scott et al., 2001), 적절한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보고하고 있다.

편모들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과 관련된 이러한 어려움은 복지개혁 이후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TANF 프로그램 실시와 함께 미국의 대부분의 주정부가 자녀가 한살이 되기 전부터 빈곤 편모들에게 강제취업 규정을 적용시키기 때문이다 (Zedlewski & Alderson, 2001a). 따라서 최근의 복지개혁과 취업을 전제로 하는 복지제공 프로그램 (Welfare-to-Work Program)을 수급자들의 입장에서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업률이나 취업안정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모역할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나 심리적 복지의 변화를 고찰해야만 할 것이다.

II. 본론

빈곤 편모에 대한 강제 취업규정이 빈곤 편모가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을 적절히 파악하고 향후의 가능한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변화과정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빈곤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에 관한 연구가 TANF 시대에 왜 더 심도깊게 이루어져야만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미국의 복지정책의 역사에서 빈곤 편모의 지위의 변화를 간략히 고찰한다.

1. 빈곤 편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역사

부양자녀를 둔 빈곤 편모에 대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던 20세기 초에는 어머니의 주된 책임이 경제적인 가계부양자 역할이 아니라 자녀돌보기 역할이라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Goodwin, 1995). 그 당시에는 편모를 위한 공공부조가 “어머니 됨”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빈곤편모들이 자녀 돌보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빈곤가계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유익한 일로 간주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어머니를 위한 연금 (Mothers' Pension)”이 피부양자녀를 둔 빈곤한 어머니들에게 큰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어머니를 위한 연금” 프로그램들은 1935년의 Social Security Act (SSA) 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연방 공공부조 프로그램이었던 Aid to Dependent Children (ADC)의 모델이 되었다. SSA는 미국내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을 제도화한 첫 번째 법으로서, 다른 요보호 대상자들-노인, 맹인, 그리고 (1950년대 후반 포함된) 장애인-과 함께 피부양 자녀를 둔 빈곤 편모들도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가진 인구에 포함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 이러한 유형의 복지체계가 미국 복지체계의 근간을 이루었다 (Gilbert & Terrell, 1998).

이러한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1972년의 SSA 수정법안 이었다. 수정 SSA 법안은 맹인, 장애인, 그리고 노인을 위한 공공 부조프로그램을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SSI)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였다 (DiNitto, 2000). SSI 에 포함되는 프로그램들은 연방정부의 통제하여 놓여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단일한 체계의 현물서비스가 주어졌으나, 앞서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중 AFDC 프로그램만이 이 연방화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다 (Gilbert & Terrell, 1998). 사실상 AFDC-1962년 ADC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AFDC로 이름을 바꿈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존립여부 및 수급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는 이 시기에 이혼가정과 혼외자녀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프로그램 운영상의 비용이 너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AFDC가 연방화 과정에서 제외된 부분적 이유이다.

사실상 1960년대 이후 피부양 자녀를 둔 빈곤 편모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편모가 그들의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최우선 책임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왔는데 (Blank & Blum, 1997), AFDC 수급자들이 시장노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해야한다는 사회적 담론이 성문화되어 나타난 것이 1996년 PRWORA 법이다 (Broughton, 2001). 간단히 말하면, 1996년 복지개혁은 연방국가가 피부양자녀를 가진 요부양 빈곤 부모들로부터 공공부조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TANF 정책들의 가능한 영향력에 관한 경험적 증거들에 따르면 “공공부조 수급자들의 수가 크게 감소한 가장 큰 이유는 TANF의 시간제한법이며, 이 시간제한은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Bloom et al, 2002, p. ES 7)고 한다. 몇몇 주들이 “어린 자녀를 돌보는 의무” 라는 면제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들에 대한 강제적 취업규정을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그 면제기간은 상당히 짧으며, 그 기간이 지속적으로 더 짧아지고 있다.

2. 빈곤 편모의 부모역할에 관한 복지정책의 시각

미국 내 빈곤 편모에 대한 수십년에 걸친 복지정책의 변화는, 미국 사회가 빈곤 편모의 주요 역할을 매우 협소하게 정의해 왔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 분야에서의 주요 연구들 (Goodwin, 1995; Miller, 1996)에 따르면, 다음의 세 가지 잠재적 소득원들 간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빈곤 편모에 대한 미국의 복지정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1) 공공부조, 2) 자녀 아버지로부터의 자녀양육비 보조금, 3) 편모의 취업소득. 사실상 20세기 중반이후부터 저소득층 편모가계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지원은 감소한 반면, 자녀부양강제 (Child Support Enforcement)제도에 의한 자녀아버지로부터의 보조금과 편모의 취업소득이 가계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Blank & Blum, 1997; DiNitto, 2000; Goodwin, 1995; Martha, 1997). 같은 맥락에서 저소득층 편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조되어온 반면, 그들의 부모역할은 공공정책분야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복지정책 영역에서 저소득 편모들의 부모역할의 중요성의 점점 감소되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 첫째, 저소득층 편모들은 미국 사회내의 주된 문제 집단으로 간주되어져 왔다는 점이다 (Mink, 1998). 혼외자녀 출생은 가난 및 그 밖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의 주요원천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 편모에 대한 공공부조의 삭감이나 노동을 전제로 한 복지수급 (welfare-to-work) 규정의 실행과 같은 “재정적 벌칙 (penalties)”들의 집행이 쉽게 정당화되었다 (Phoenix, 1996, p.176). 결과적으로, 지난 30년간의 사회복지정책들의 주요 초점은, 저소득 편모와 그 자녀의 복지가 아니라, 혼외출생자의 숫자를 감소시키는데 모아졌다.

둘째, 어린 자녀를 둔 중산층 주부들의 취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 따르면 3세 미만의 어린 자녀를 둔 중산층 어머니들의 50% 이상이 취업하였으며 (Ehrle, Adams, & Tout, 2001), 이들의 취업이 자녀의 복지를 감소시킨다는 경험적 근거는 희박하다 (Desai, Chase-Lansdale, & Michale, 1989). 이러한 경향은 자녀의 연령, 가족의 경제적 상태, 혹은 다른 상황적 어려움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편모의 경제부양자 역할 강조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들이 복지수혜가 혼외자녀출산을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의 수급이 혼외자녀의 출산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Moffitt, 1998, p.54). 또한 몇몇 정책 입안자들은 복지수급이 빈곤 편모의 취업률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주장한다 (Abrahamson, 1988). 이러한 주장들로 인해, 빈곤한 편모들의 공공부조 수혜의 권리는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서 단지 아주 미약하게만 보장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복지개혁 이전에는 공공부조라는 것이 빈곤편모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 (safety-net)의 기능을 해왔다. 비록 그 범위와 수혜금액의 양은 빈곤 편모가 취업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돌보기에는 크게 부족하였으나, 복지 급여는 빈곤 편모가계의 경제적 안정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으며 경제적 생존의 기초적 보장으로 기능하였다 (Secombe, 1999). 공공부조의 이러한 안전망 기능은 사실상 편모가계에 대한 다른 재정적 도움들이 크게 불안정성하다는 사실과도 관련된다. 따라서 현재의 복지법-편모들로부터 이러한 안전망을 제거하고 강제적 취업규정을 실행시킨 것은 편모들의 부모로서의 복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과 관련하여, 미국의 복지정책의 전개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판들이 있다. 첫째, 많은 학자들 (Abrahamson, 1998; Connolly, 2000; Eitzen & Zinn, 2000)은 빈곤 편모에 대한 현재 복지급여 삭감이 “희생자들을 탓하기 (victim blame)” 이라고 주장한다. 편모들은 실제로 부모가 되기 전 그리고 되고 난후 모든 시기들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혼외 자녀출산이 가난과 복지 수혜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과장되기 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빈곤 편모들은 그들이 임신을 할 당시에 이미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혼외 자녀출산이 빈곤에 대한 취약성 (vulnerability) 을 증가시키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혼외 자녀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빈곤해 졌다고 보다는 빈곤하다는 것이 혼외자녀 출산의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Edin, 2000; Eitzen & Zinn, 2000).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현재의 복지개혁은 사실상 빈곤한 가계에 대해 그 빈곤의 책임을 다시 추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Luker, 1996).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복지정책의 변화는 중산층 주부의 취업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데, 이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상 빈곤 편모와 중산층 주부 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이 그 가족원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집단별로 크게 차이를 보일 수 있다 (Broughton, 2001; Heymann & Earle, 1999; Mink, 1998; Morris & Duncan, 2001; Seccombe, 1999; Zuckerman & Kalil, 2000). 경험적 연구들에 따르면, 빈곤 편모의 취업이 그들의 자녀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중산층 주부와는 다른데, 이는 직업의 특성, 사회적 지지망, 탁아시설의 이용가능성, 그리고 자녀돌보기와 관련되는 다른 자원들의 이용가능성 등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정책을 고안함에 있어서 빈곤 편모가계가 처한 상황이나 중산층 가계와는 다른 구체적인 어려움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996 복지개혁에 대한 중요한 또 다른 비판은 저소득 편모들에게 이용가능한 직업의 근로조건 문제와 관련된다. 사실상 열악한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투자가 없이 단지 빈곤 편모들의 취업만을 강제할 경우, 취업이 빈곤 편모가계 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빈곤 편모들은 취업이 주는 잠재적 이익이 그것의 예측되는 비용보다 조금이라도 크다면 취업을 하고 싶어한다 (Connolly, 2000; Edin & Lein, 1997; Seccombe, 1999). 따라서 노동을 전제로 한 취업 (welfare-to-work)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취업규정만을 강화시

키기 보다는 취업의 잠재적 비용은 낮추고 이익은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빈곤 편모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

미국사회에서의 빈곤 편모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이 보여준 바와 같이, 빈곤 편모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은 충분히 논의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Oliker, 2002). 취업과 부모역할 수행과 관련된 종전의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중산층 주부들의 일-가정 간의 역할갈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Bird, 1997; Copeland, 1999; Rogers & White, 1998; Voydanoff, 2002; Zaslow et al., 1999). 중산층 주부들은 부모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원들의 양과 질 그리고 취업으로부터의 잠재적 이익의 견지에서 빈곤 편모들에 비해 훨씬 좋은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중산층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의 연구들은 빈곤 편모들의 상황에 대한 적용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아주 제한적이다.

비록 빈곤 편모의 부모역할 수행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이 몇몇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대개 편모 자신들의 복지보다는 자녀들의 복지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Mink, 1998).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많은 연구들이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편모의 자녀양육 유형이나 태도등을 주요 변수로 하였다 (Bank et al., 1993; Blueston & Tamis-Lemonda, 1999; Jackson et al. 2000; Klebanov et al. 1994). 같은 맥락에서, 편모의 육아 스트레스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도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육아 스트레스를 간주하기 보다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부적절한 자녀양육 행동이나 태도, 더 나아가 자녀의 발달상태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hlson, 2001; Smith et al. 2001; Voydanoff & Donnelly, 1998). 빈곤 편모 집단을 연구함에 있어서 고려해야만 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쟁점은 이 집단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다.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많은 연구들에서 편모라는 용어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Ross, 1995; Smock, 2000). 편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질적 연구들에 따르면 전통적인 의미에서 편모로 범주화될 수 있는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실제로 그들의 자녀의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거나 사실상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Ross, 1995; Smock, 2000). 이러한 연구들은 또한 동거하고 있는 편모가 서

로 방문하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있는 편모나 전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편모와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특성에 있어서 다르다고 하였다. 결국 현재 편모의 범주는 편모가 자녀 아버지와 맺는 관계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관계의 유형별로 편모의 육아문제나 부모로서의 역할수행상의 어려움은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빈곤편모의 사회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자녀 아버지와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III. 결론

최근의 복지개혁과 강제취업 프로그램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복지 수급자들의 취업률, 취업안정성, 취업기간 등만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복지의 변화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정생활상의 문제들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취업이 중산층 가정의 취업모들과 복지수급을 하는 편모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복지수급을 위한 강제적 취업이 빈곤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역동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간적 경제적 자원관리 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것은 1996년 복지개혁이 그 대상 인구의 심리적 복지에 미친 잠재적 영향력을 이해하고 또 미래의 영향력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학문영역과 공공정책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져 왔던 복지수급 경험을 가진 편모의 부모로서의 심리적 복지에 주목하여야 한다. 취업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취업을 강제하는 것의 차이에 주목하여 취업이 빈곤가정의 다양한 역동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빈곤 편모의 부모로서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고안하는데 시의적절하며 가치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강제취업이 빈곤 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매개변수와 중재변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강제취업이 빈곤편모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가능한 경로를 파악하여야 한다. 대개의 저임금 노동이 정규성이나 융통성의 면에서 열악한 근무조건을 제공하며, 빈곤 편모가게에는

취업 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용통적인 근무스케줄이나 이밖에 발생가능한 다양한 문제들은 편모의 육아스트레스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복지수급 편모 집단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질적인 집단일 수 있다. 따라서 편모의 자녀아버지와의 관계나 사회적 지원망의 범위나 크기, 그들의 사회심리적 문제 등이 중재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편모,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다양한 배경변수들을 고려함으로써 편모 집단내에서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즉, 복지수급 경험이 있는 편모들의 다양한 하위집단별로 심리적 복지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적 취업규정 하에 있는 편모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적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고안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수급 편모가정의 내부적 역동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수급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가정 내 다양한 자원들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복지를 평가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왔다. 강제취업이 편모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자원의 배분 및 관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가정 내 자원 관리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에 따라 강제취업의 잠재적 부정적 영향력이 어떻게 감소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새로운 복지법들에 의해 복지수혜 자격이 더욱 더 엄격해지고 강제적 취업규정의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는 현재, 그들의 복지와 직접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연구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Abrahamson, M. (1998). *Out of wedlock birth: The United Stat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Connecticut: Praeger.
- Bank, L., Forgatch, M. S., Patterson, G. R., & Fetrow, R.A. (1993). Parenting practices of single mothers: Mediators of negative contextual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2), 371-384.
- Bird, C.E.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burdens of parent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4), 809-823.

- Blank, S.W., & Blum, B.B. (1997). A brief history of work expectations for welfare mothers. *The Future of Children*, 7(1), 28-38.
- Bloom, D., Farrell, M., & Fink, B. (2002). *Welfare time limits: State policies, implementation, and effects on families*. New York, NY: Manpower Development Research Corporation.
- Bluestone, C., & Tamis-LeMonda, C. S. (1999). Correlates of parenting styles in predominantly working and middle class African American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881-893.
- Brauner, S., & Loprest, P. (1999)a. *Where are they now? What states' studies of people who left welfare tell us?* (Working Paper Series, A-3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Broughton, C.E. (2001). *Reforming poor women: The cultural politics and practices of welfare refor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 Cancian, M., & Meyer, D.R. (2000). Work after welfare: Women's work effort, occupation, and economic well-being. *Social Work Research*, 24(2), 69-86.
- Connolly, D. R. (2000). *Homeless mothers: Face to face with women and poverty*. Minneapolis: Th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opeland, D. B.(1999). *Maternal competence and health status in early parent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Louisiana State University Medical Center.
- Corcoran, M., Danziger, S.K., Kalil, A., & Seefeldt, K.S. (2000). How welfare reform is affecting women's work.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41-269.
- Desai, S., Chase-Lansdale, P. L., & Michael, R.T. (1989). Mother or market?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intellectual ability of 4-year-old children. *Demography*, 26(4), 545-561.
- Dinitto, D.M. (2000). *Social Welfare: Politics and public policy*. (5th ed.) Allyn and Bacon.
- Edin, K. (2000). What do low-income single mothers say about marriage? *Social Problems*, 47(1), 112-133.
- Edin, K., & Lein, L.(1997). *Making ends meet: How single mothers survive welfare and low-wage work*. Russell Sage Foundation.
- Ehrle, J., Adams, G., & Tout, K.(2001). *Who's caring for our youngest children? Child care*

- patterns of infants and toddlers*(Assessing New Federalism, Occasional Paper 4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Eitzen, D. S., & Zinn, M.B.(2000). The missing safety net and families: A progressive critique of the new welfare legislation.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Welfare*, 27(1), 53- 72.
- Gilbert, N., & Terrell, P. (1998). *Dimension of Social Work Policy*. 4th (ed.). Allen and Bacon.
- Goodwin, J.L. (1995). Employable mothers and suitable work: A reevaluation of welfare and wage earning for women in the twentieth-century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History*, 29, 253-274.
- Heymann, S. J., & Earle, A.(1999). The impact of welfare reform on parents' ability to care for their children's health.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4), 502-505.
- Jackson, A.P., Brooks-Gunn, J., Huang, C., & Glassman, M.(2000). Single mothers in low-wage jobs: Financial strain, parenting, and preschoolers' outcomes. *Child Development*, 71(5), 1409-1423.
- Klebanov, P.K., Brooks-Gunn, J., & Duncan, G.J. (1994). Does neighborhood and family poverty affect mothers' parenting, mental health,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2), 441-456.
- Luker, K. (1996). *Dubious conceptions: The politics of teenage pregnanc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ha, D. (1997). Single mothers in the USA: Unsupported workers and mothers. In Duncan, S., & Edwards, R. (Eds.)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pp.81-113). London: UCL Press.
- Millar, J. (1996). Mothers, workers, wives: Comparing policy approaches to supporting lone mothers. In Silva, E. B. (ed.) *Good enough mothering?: Feminist perspective on lone motherhood*. (pp.97-113). Routledge.
- Mink, G. (1998). *Welfare's End*. Cornell University Press.
- Moffit, R., & Roff, J. (2000). *The diversity of welfare leaver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Moffitt, R.A. (Ed.) (1998). *Welfare, the family, and reproductive behavior: research perspectives*. National Academy Press.

- Morris, P.A., Duncan, G.J. (2001). *Which welfare reforms are best for children?* (Welfare Reform and Beyond Policy Brief, 6).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 Ohlson, Cheryl. (200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life events, stress, and parenting behaviors among mothers of preschoolers within the context of welfare reform and childhood dis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Oliker, S. J. (2002). Challenges for studying care after AFDC. In Gerstel, N., Clawson, D., & Zussman, R. (Eds.) *Families at work: Expanding the boundaries.* (pp. 289-301) Nashville: Vanderbilt University Press.
- Olson, S.L. & Banyard, V. (1993). Stop the world so I can get off for a while: Sources of daily stress in the lives of low-income single mothers of young children. *Family Relations, 42*, 50-56.
- Phoenix, A. (1996). Social constructions of lone motherhood: A case of competing discourses. In Silva, E. B. (ed.) *Good enough mothering?: Feminist perspective on lone motherhood.* (pp.175-190). Routledge
- Polit, D.F., Widom, R., Edin, K., Bowie, S., London, A. S., Scott, E. K., & Valenzuela, A. (2001). *Is work enough?: The experiences of current and former welfare mothers who work* (The Project on Devolution and Urban Change). New York, NY: Manpower Development Research Corporation.
- Rogers, S.J., & White, L.K. (1998). Satisfaction with parenting: The role of marital happiness, family structure, and parents'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293-308.
- Ross, C.E. (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1), 129-140.
- Scott, E.K., Edin, K., London, A.S., & Mazelis, J.M. (2001). My children come first: Welfare-reliant women's post-TANF views of work-family trade-offs and marriage. In Duncan, G. J., & Chase-Lansdale, P. L. (Eds.) *For better and for worse: welfare reform and the well-being of children and families* (pp. 132-153). Russell Sage Foundation.

- Seccombe, K. (1999). *So you think I drive a Cadillac? : Welfare recipients' perspectives on the system and its reform*. Allyn and Bacon.
- Smith, J.R., Brooks-Gunn, J., Kohen, D., & McCarton, C. (2001). Transitions on and off AFDC: Implications for parenting and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72*(5), 1512-1534.
- Smock, P.J. (2000). Cohabitation in the United States: An appraisal of research themes, findings, and implic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20.
- Voydanoff, P. (2002). Linkages between the work-family interface and work, family, and individual outcomes. *Journal of Family Issues, 23*(1), 138-164.
- Voydanoff, P., & Donnelly, B.W. (1998). Parent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 predictors of parental well-being and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2), 344-355.
- Zaslow, M., McGroder, S., Cave, G., & Mariner, C. (1999). Maternal employment and measures of children's health and development among families with some history of welfare receipt.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Work, 7*, 233-259.
- Zedlewski, S.R., Alderson, D.W. (2001a) *Before and after reform: How have families on welfare changed?* (Assessing New Federalism, B-32).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Zedlewski, S.R., Alderson, D.W. (2001b) *Do families on welfare in the Post-TANF era differ from their Pre-TANF counterparts?* (Assessing the New Federalism, Discussion Paper 01-03). Washington, DC: The Urban Institute.
- Zuckerman, D.M., & Kalil, A.(2000). Welfare reform: Preliminary research and unanswered ques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56*(4), 579-586.